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0년 표어 §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느 2:17, 엠 5:26-27)

十 행동 지침 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갱신되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나가는 우리 교회
- 3. 성경 권위와 충분성을 믿고 개인, 가정, 사회의 변혁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iseoulchurch.or.kr



진리를 만나다

(요 4:15-18)

이종윤 원로목사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가급적이면 편리하게 믿을 수 있는 방법을 구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과 대화를 하는 중에 “내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더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물을 구했을 텐데” 말씀하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 네 남편을 불러오라

(1) 하나님의 선물은 이웃과 나누기 위해 주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구하는 여인에게서 주님은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한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너 혼자 먹지 말고 네 가까운 사람과 나누어 먹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 믿음을 주시는 것으로 착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약속은 단순히 내 편리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내 가족, 내 주변의 모든 사람과 그 혜택과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할렐루야 아멘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2) 하나님의 선물은 죄를 고백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신 것은 선물을 나누게 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이 여인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얼마나 죄 되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표출케 하고 자기가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시기 위함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한 일, 잘못된 일, 죄 된 일, 귀한 일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초인적인 능력이 우리의 행동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의 속 사람을 예수님이 불꽃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 걸음도 속일 수가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본문의 ‘남편 다섯’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남편이 다섯이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해석은 은유적 해석으로 열왕기하 17:29 이하를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앗수르로 포로로 잡혀가고 사마리아 땅에 다른 민족들이 와서 살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자기들이 믿는 잡신들을 끌고 들어와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다섯 남편은 잡신들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은유적인 해석 방법이 틀린 것으로 그 이유는,

첫째, 열왕기하 17:29 이하에 나타난 신들은 다섯이 아니라 일곱입니다.

둘째, 열왕기하에 기록된 신들을 남편으로 비유할 수가 없는 것은 한 여자가 남편 다섯을 한꺼번에 데리고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에 들어온 잡신들은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여인의 과거를 알고 계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먼저 가진 사람이 인간 지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나는 죄인입니다’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이사가가 그랬습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여인의 양심에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양심에 대해 질문을 하신 것은 그 여인이 자기의 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도록 하신 것입니다.

(3) 남편을 불러오라는 것은 모든 짐을 주님께 가지고 오라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마 11:28). 무거운 짐은 못 견디고 쓰러질 만큼 무거운 짐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의 짐이요, 오늘 우리에게는 죄악의 짐이요, 죽음의 짐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단의 동아줄에 꼬박 묶여 있습니다. 이 동아줄의 이름이 율법과 죄와 사망입니다. 이 율법과 죄와 사망의 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 신앙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께 오는 것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주님을 등지고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멀리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욱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인은 결국 주님 앞에서 ‘선지자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주님 앞에서 더 이상 버티지 말고 주님이 주님 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손들고 주 앞에 오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문제를 다 알고 해결해 주십니다. 이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2020 홍해작전 승전을 향하여

6월 25일(목)을 승전의 날로
승전감사예배 : 6월 28일(주) 3부 예배 시 / 설교 : 이종운 원로목사

"예루살렘이여,
꺾리지마라 꺾리지마라
일어서지어다"
(사51:17)

2020 홍해작전이 이제 4일 남았다. 올해 홍해작전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운 환경을 타개하고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중요 한 기점에서 시작하여 힘차게 행군해 왔다.

마지막 남은 4일도 요일별 주력교구는 새벽 을 깨워 모이기 바라며 다른 교구들은 온라인 예 배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

홍해작전은 "말씀"과 "기도"작전이다. 새벽

< 특별새벽기도회 요일별 주력교구 >

날짜/요일	교 구
6.22(월)	1,2,3,4,13 교구
6.23(화)	6,7,8,9 교구
6.24(수)	5,11,16 교구
6.25(목)	10,12,14,15 교구

기도회뿐만 아니라 지금 국가와 교회, 그리고 개 인 앞에 놓인 기도제목에 붙들고 아침 10시 오후 10시 하루에 두 번씩 기도하여 모든 성도가 모두 홍해를 건너기 바란다.

2020 홍해작전 승전 감사예배는 6월 28일 주 일 3부 예배에 함께 드리며 설교는 이종운 원로 목사가 담당한다.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서울교 회 성도들 되길 바란다.

교회건물 불법점거 손해배상 건, 법원 감정인 손해액 감정서 제출

-오는 7월 15일 첫 재판 시작-

박노철 목사 측은 지난 2018년 3월 8일(목) 밤 11시경 수십 명의 용역과 폭력을 앞세워 교회 현관문을 부수고 불법 침입하였고, 1차 진입 용역들의 불법이 드러나 경찰에서 철수 지시를 받고 다음 날 오후 3시경 모두 철수하였음에도 저녁 7시경 다시 70여 명의 불법 용역을 대동하여 2차 침입한 후 현재까지 1층을 제외한 2층 이상과 지하주차장 등 거의 모든 건물 출입을 강제로 막고 있어 당회는 지난 2019년 6월 10일(월) 그들 중 박노철 목사 등 100명을 상대로 교회 사용권을 침해하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고 9개월여의 끈질긴 송달 시도 끝에 지난 2020년 3월 말 100명 전원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졌다.

이에 법원은 감정인을 지정하여 손해액을 감정하도록 명령하였고, 최근 법원 감정인은 박노철 목사 측이 점거를 시작한 2018년 3월부터 우선 지난 2020년 5월까지의 서울교회 손해액으로 합계 약 38억 7천만 원을 산정하여 제출하였으며 위 손해액은 앞으로 불법점거가 계속되는 한 매달 약 1억 2천만 원씩 추가되고,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면 위 손해액은 매달 약 1억 7천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 다.

“
2018년 3월 - 2020년 5월
서울교회 손해액
합계 약 38억 7천만 원 산정

불법점거가 계속되는 한
매달 약 1억 2천만 원씩 추가

대법원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박노철 목사 측의
일방적인 불법점거가
계속되는 한 매월 누적

”

물론 이 손해배상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안식년 관련 대법원 사건의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박노철 목사 측의 일방적인 불법점거가 계속 되는 한 매월 누적되게 되고, 향후 법원에서 위 감정된 손해액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면 위 100명 중 어느 한 사람 에게도 전액에 대한 책임 추궁이 가능하며, 이번에는 1차 로 적극 가담자 100명을 상대로 제기되었지만 앞으로 이들 이외에도 예배를 빙자하여 불법점거에 동조하는 다른 교인 들을 상대로도 추가 소송이 가능하여 이들이 이런 막대한 재산적 부담까지 감수하면서 무작정 불법점거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법원은 이 사건 재판 을 오는 7월 15일 개시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빠른 시일 내에 이 재판도 마무리되고 아울러 이들의 교회 건물 불법점거도 조속히 해소되 기를 위해 성도들의 더 집중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안재선·문수자 주화인 최봉애 이관규 이영조 김영선·권택숙 김현중·임규연 김형상·최금숙 장창수·박해정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유·초등부 홍해작전 행사

2020 홍해작전을 맞아 유·초등부는 오늘 6월 21일(주) 홍해작전 특별 행사를 유·초등부 온라인 예배를 마친 후 진행한다.

- 제목 : 내 사랑 서울교회
- 행사 항목
 - 4행시 : 홍해작전
 - 7행시 : 내 사랑 서울교회
 - 그림그리기
- 시상
 - 항목별 믿음/소망/사랑 각 1명
 - 참가상 : 참석자 전원

- 참가방법 : 그림과 4행시/7행시를 사진으로 찍어서 6월 21일 밴드에 올리기 바란다.

또한 6월 25일(목)까지 진행되는 홍해작전 온라인 특별새벽기도회에 참석한 후 예배하는 사진 혹은 참석 여부를 밴드 댓글에 올린 학생 에게도 시상할 예정이다.

2020 성경암송대회

2020년 성경암송대회에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바란다.

1. 교회학교별 성경암송대회(예선)
 - * 일시: 9. 27(주)
 - * 암송범위: 시편 119편
2. 각 부서별 성경암송대회(본선)
 - * 일시: 10. 10(토)



2020 흥해작전

함께 흥해를 건넌시다!



박광식 집사
(2020 흥해작전 차장)

흥해의 기적!!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을 탈출, 약속의 땅으로 가던 중 기적적으로 흥해를 건넌 사건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이 사건을 기억하며 매년 전교인이 교회에 모여 흥해작전 특별새벽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또는 교구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응답받는 흥해작전이 되고 있습니다. 세 분 부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출애굽 열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비추어 성찰하여 봅니다.

완약하고 무지하여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 두려우며 나의 삶에 죄가 있으면 그대로 두지 마시고 깨닫고 돌이켜 나의 죄를 보게 하소서.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아울러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세상과 구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 앞에 가로놓인 흥해를 무사히 잘 건널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2020 흥해작전은 “내 사랑

서울교회여, 깨어나라!”는 주제와 같이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흥해를 무사히 건너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품고 있는 무거운 짐을 있는 그대로 전능자인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아뢰을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찾아 오시어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강사로 모신 서창원 목사님 말씀으로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특별새벽기도회가 4일 남았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앞에 놓인 흥해를 건너지 않으시렵니까!! 모두 함께 흥해를 건넌시다!!

한동안 뵙지 못하여 보고 싶었던 성도님들의 반가운 얼굴들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코로나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고, 서울교회를 분열시키는 악의 세력들이 속히 괴멸되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나 하나 되고, 이전 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교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2020 흥해작전 특별기도회를 마치며 교회를 나섭니다.

내일 새벽을 기다리면서...



교회 입장 전에 체온체크는 필수!

특별새벽기도회 온라인 방송 준비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고려한 특별새벽기도회

국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건너

오원종 성도 (청년부 회장)

주님, 국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이 어려운 시국을 헤쳐나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현재 북한과의 외교적인 상황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갈등이 해결되어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두 나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도들의 건강을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장기간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이로 인하여 경제적인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낙담하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욱 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기억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경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일구어낸 이 터전 위에 우리가 더 많은 꽃을 피워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서울교회가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여러모로 힘들고 지치더라도, 그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나며 인내와 연단의 시간으로 성숙 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 훗날, 이 교회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의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탐욕과 이기심이 아닌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지금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6월 6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2020 흥해작전’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사 51:17)” 말씀을 중심으로 어려운 시국 속에서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깨어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위원들 머리 위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 교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초등부의 홍해작전!

홍해작전을 맞아 유·초등부는 교회에 오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기도카드와 6월 성경읽기표, 그리고 등교중인 친구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손 소독제를 보내주었습니다. 제주, 원주, 경기도 광주 등 먼 곳에 거주 중인 학생들 14가정은 택배로 발송하였고, 나머지 강남, 송파, 하남, 분당 학생들은 전도사님과 선생님 세 분이 나누어 직접 우편함으로 배송을 했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사랑 듬뿍 가득한 선물 ♡♡♡
학교는 개학을 했는데, 교회학교는 또 개학이 연기되어서 아이들의 실망이 컸지만, 보내주신 선물로 학교에 가서 쓰겠다며 신나했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

늦은 시간에 이렇게 집까지 찾아와 주심에 감사하고 또 감동적인 선물입니다. 지성이 너무 좋아해요^^
유·초등부 선생님들 고생이 많으시고 또 감사합니다~
빨리 교회에서 뵈고 싶어요.

주하는 주하면 잘 받았습니니다. 감사드립니다.
늘 신경 써 주시구 열심히 손 닦고 말씀도 열심히☆☆



감사합니다
호산나대학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호산나대학에 재학 중인 이지원 학생 엄마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의 학교들이 개학에 어려움을 겪고 온라인 학습으로 대체하고 있는 위중한 시기에 든든하신 하나님의 지지와 서울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교수님들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용감히 5월 6일 개학하여 지금까지 무사히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생활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약 2개월 동안 지원이를 집에서 돌보며 온 가족이 겪은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지원이의 고통을 매일 보며 호산나대학이 우리 아이들의 천국임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

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이가 호산나대학에서 받은 사랑과 행복을 금전적으로 셈할 수는 없지만, 학교 발전과 수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5,000,000원을 기부합니다.
※ 지원 학생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서울교회 회복지금으로 1,000,000원을 현금합니다.

동정

- 특남 : 6월 5일 이중중 성도 김지양 성도 가정 (3교구 김동진 집사 박진주 집사 딸)
- 개업 : 7교구 장상국 집사 수원왕갈비통닭 대전 유성구 온천서로 12 T: 042-822-3790

전교인 성경읽기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딤후 3:15)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6월22일	월	시 69-72		딤후 1-3, 몬, 히 1-6	
6월23일	화	시 73-77		히 7-13	
6월24일	수	시 78-79		약 1-5	
6월25일	목	시 80-84		벤전 1-5, 벤후 1-3	
6월26일	금	시 85-89		요일 1-5, 요이, 요삼, 유	
6월27일	토	시 90-95		계 1-10	
6월28일	주일	시 96-102		계 11-22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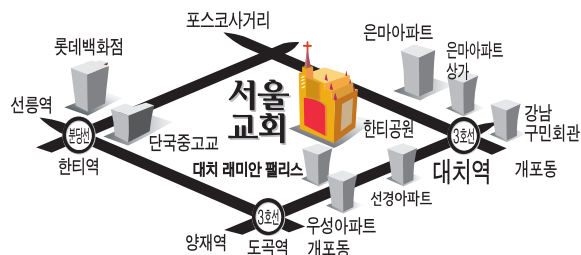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 6월 25일(목)까지 새벽 5시에 모이는 홍해작전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하여 교회와 나라와 가정과 개인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 우리 교회가 속히 회복되어 복음 전파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어 경제가 활성화 되고 일상생활이 회복되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배	오전 9시	
	II 부 예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